

退溪詩와 僧侶**

李 章 佑*

• 目 次 •

I. 序	IV. 宗粹上人에게 준 詩
II. 詩題의 形態와 보이는 僧侶들	V. 結
III. 지금 전하는 詩의 內容	

I. 序

이 글은 지금까지 세상에 널리 통행되어 온 목판본 퇴계문집¹⁾에서는 흔히 삭제하여 버린, 퇴계가 승려에게 준 시들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위의 퇴계문집, 특히 그 本集에서는 가끔 퇴계가 절에 들러서 쓴 시는 수록하고 있지만, 그러한 절에서 만난 승려들에게 지어 준 시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 別集과 外集·續集에 겨우 몇 수의 贈僧詩가 보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寫本 《陶山全書》의 第3冊·第4冊을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퇴계의 贈僧詩가 보이며,²⁾ 특히

* 영남대 중문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68호(1990) 게재논문

1) 대표적인 것으로는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에서 영인해 낸 《退溪全書》의 庚子本 退溪先生文集의 原本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2) 十五題 정도가 보인다. 이 중에 六題 정도만 겨우 《退溪全書》에 보일 뿐이다.

이 《全書》의 맨 끝부분인 第4冊 末尾에 붙은 <逸目錄>(글의 제목만 전하고 내용은 전하지 않는 것)에는 80題에 가까운 贈僧詩題가 보인다.

또 퇴계와 교유가 있었던 그 당시 선비들의 문집, 예를 들면 周世鵬의 문집인 《武陵雜稿》를 보아도,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재직할 때에 청량산에 유람을 가서, 이퇴계가 쓴 <白雲庵記>를 읽었고, 또 퇴계가 그 암자의 중들에게 지어 준 시를 보고서, 그런 시의 脚韻字에 次韻하여 다시 그 중들에게 지어 주었다는 시가 4수나 수록되어 있지만, 위의 퇴계문집에는 이러한 <記>도 전하지 않고, 또 시도 한 수도 전하지 않는다. 다만 《陶山全書》에만 이와 관련된 시 1수가 전하고 있다.³⁾

퇴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청량산의 山寺나, 月瀾庵 같은 禮安의 암자 등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벼슬길에 서울을 往還할 때에도 자주 절에 들어가서 머물기도 하였다.

《朱子語錄》을 보면, 당나라 때에 승려들이 사대부들을 찾아다니며 詩軸(또는 詩卷)에 시를 적어 달라고 부탁해서 여러 사람들의 시를 받아 두는 것이 풍속처럼 되었다고 하며, 中唐의 劉禹錫 같은 문인의 문집에는 이렇게 중들에게 지어 준 시만 하여도 한 권이 된다고 하였다.⁴⁾

또 역시 中唐 때에 排佛論者로 유명한 당송8대가의 한 사람인 韓愈 같은 사람의 문집을 보아도, 그가 승려들에게 쓴 시들이 몇 수 보인다. 특히 韓愈는 중들에게 시를 지어 주면서, 중들을 조롱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⁵⁾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면, 전통적인 성리학자 또는 배불론자라고 하여, 승려들과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또 승려들에게 더러 글을 지어 주었다고 해서, 그들의 학문이나 인격에 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날 퇴계나 퇴계의 저술을 대할 때에도, 가능하면 퇴계가

3)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필자가 <退溪와 山僧과 慎齋詩>라는 글을 별도로 작성하여 紹修書院에서 口頭發表를 한 바 있다.

4) 《朱子語類》 卷第139 <論文·上>

5) 필자가 번역한 《한유시 이야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참조.

지냈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여야 하지, 퇴계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고의로 가려지고 굴절된 이퇴계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종전의 퇴계문집에서 제대로 수록하지도 않았던 승려들에게 준 시들을 다시 한 번 찾아봄으로써, 이와 같은 본래의 퇴계의 모습을 찾는 작업의 한 부분이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II. 詩題의 形態와 보이는 僧侶들

그러면 우선 《陶山全書》 第三冊(外集·別集)과 第四冊(遺集·逸目錄)에 보이는, 퇴계가 승려들에게 준 시의 목록을 검토하여, 퇴계가 어떤 동기에서 이러한 시들을 짓게 되었는지, 또는 이러한 시들을 받은 승려들은 어떠한 인물들이었는지를 훑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애로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는, 지금 필자가 조사의 저본으로 삼고 있는 《陶山全書》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붓으로 적어 놓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목판본이나 활자본과 같이 그렇게 完整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목차나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보인다.

둘째는, 똑같은 승려 같은데도 호칭을 「○○師」, 「○○上人」과 같이 두 자로 적기도 하고, 「○師」, 「○上人」과 같이 한 자로만 적기도 한 것이 있으며, 「逸目錄」에는 시의 제목만 보이지, 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서는 승려의 범명인지, 일반인의 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셋째는, 이 논고에서는 퇴계가 승려들에게 직접 지어 준 시만 다루려고 하는데, 제목 중에는 퇴계가 절에 들어서 그 절의 경관이나 분위기

등을 읊은 것, 또는 친구들이나 명사들이 중에게 적어 준 詩句만 보고 서(또는 듣고서) 次韻한 시도 더러 섞여 있지만, 그러한 것을 「승려들에게 직접 지어 준 시」와 구분하여 내기에는 어려운 것도 많다.

이러한 몇 가지 애로점을 전제로 제시하고서, 다음에 퇴계가 어떠한 승려들에게 어떤 시를 주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목으로 보아서는 「贈○○師」, 「贈○○上人」이라든지, 「題○○詩卷」, 「書○○詩軸」 같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계 당시에, 앞서 이야기한 당나라 때의 풍습과 같이, 우리 나라의 승려들이 名士들을 찾아다니며 시를 받아서 詩卷이나 詩軸을 만들어 지니던 것이 습관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요즘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의 싸인을 받아 두는 것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옛날에는, 승려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보다도 광범위하게 전국 각지를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이러한 行脚僧들이 이곳 저곳의 名士와 名士들 사이에 편지나 소식, 또는 시문 작품을 전달하여 주는 매개 역할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詩題에 흔히 「乞詩」나 「索詩」나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퇴계가 점차 명성이 높아지자, 그에게 시를 얻고자 찾아오는 중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준 퇴계의 시제를 보면, 서로 시를 지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화답시를 받거나, 서로 次韻하는 시를 지어 詩文을 다지는 것이 많은데 비하여, 이렇게 중들에게 준 시에는 一百首 가운데 유일하게 「宗粹上人」이라는 승려의 시에 차운한 것 하나만 보인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승려들에게 이러한 시를 주었는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鶴駕山の 陵淸山人, 小白山 妙峯庵의 宗粹上人, 龍壽寺의 主僧 道信, 浮石寺의 玄日上人, 小白山 石崙寺의 寶器와 普品, 觀音窟의 三僧, 淸涼山 僧, 京山 僧 義文, 龍泉寺의 宗師, 淸涼山の 閻師와 雄師, 淳上人, 哲庵(小白山) 僧 勝天, 陶山書堂을 지어 준 龍壽寺의 法蓮, 法蓮의 弟

子 祖敏, 鳳亭寺의 空允, 巖寺(神勒寺)의 住持 信覺 정도가 시의 내용이나 제목, 또는 필자가 다른 자료를 통하여⁶⁾ 겨우 거처를 확인할 수 있는 승려들이고, 그 나머지 중들은 태반 그 거처를 알 수 없고 어떤 詩題는 중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도 있다.

이 중에서 퇴계의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승려는 宗粹上人으로 그에게 지어 준 시는 지금 전하는 것만 하여도 10여 수가 넘는다. 그 외에 詩題에 두 번 정도씩 나타나는 승려로서는 信覺, 雄師, 思允(미상),⁷⁾ 玄日上人, 闇師 정도이다. 이로 보아 宗粹上人 등 몇몇 승려를 제외하고는 퇴계와 자주 접하였던 중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다.

Ⅲ. 지금 전하는 詩의 內容

그러면 《陶山全書》에서 내용까지 전하고 있는 시 몇 수를 소개할까 한다.

<禪峻上人將遊風岳, 再贈一絕>

飄然不繫野雲蹤, 一錫將凌二萬峰.
若得無多眞法妙, 不如歸坐舊山中.

—《外集·卷一》, p.406

<선준승려가 금강산 유람을 간다기에 다시 절구시 한 수를 지어 주노라>

회오리바람같이 얽매임 없고,
들구름같이 떠돌아 다니누나.

6) 위 3)에서 인용한 《武陵雜稿》.

7) 바로 위에 나온 책에 보면 淸涼山僧 允師에게 퇴계가 지어 준 詩를 보고, 周世鵬이 次韻한 詩가 전하는데, 同一人인지 모르겠음.

한 스님 넘으려 하네,
 일만 이천 봉우리를.
 만약 많이 얻지 못하거든
 참된 이치를 오묘하게.
 같지 못하리라, 돌아와서 앓음만
 옛날 살던 산 속으로—.

「선준산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逸目錄>에 <峻師既新齋庵, 今遊東海, 明年寒食當會>(준스님이 이미 암자를 새롭게 장만하고, 이제 동해안으로 유람갔다가 명년 한식 때 돌아와서 만날 것이다— p.477)라는 제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퇴계가 살던 陶山에서 가까이 살았으며, 퇴계와는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다.

보기에 따라서는 셋째 구절에서, 약간 불교에 대하여 비방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는— 마지막 구절에 가서 곧 옛 터전으로 돌아와서 나와 다시 만나자는 뜻을 담고 있으니, 떠나가는 사람을 전별하는 시로서는 훌륭하다.

<題雄師詩卷>

幽棲二月風光好, 溪上青山欲杜鵑.
 借問禪房何所有, 千峯影裏綠蘿烟.
 —《外集·卷一》, p.416

<웅스님의 시 두루마리에 적노라>

그윽하게 쉬고 지내니 이월달에
 경치도 좋은데,
 시내 곁 푸른 산 속에
 삐꾸기 소리 들릴 듯하네.
 삼가 묻노니 지금쯤 선방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천 봉우리 구름 속에
 파란 송라 안개에 싸였겠지.

「웅사」는 청량산의 스님으로 「志雄」이라고도 하며, 주세붕이 청량산에 갔을 때, 퇴계가 이미 그에게 지어 준 시가 한 수 있어, 그 시를 보고서 차운하여 지어 준 시가 앞에서 말한 《武陵雜稿》에도 보이며 이 《陶山全書》(遺集)에도 그에게 준 시가 또 한 수 보인다.

이 시에 「溪上」(시내 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퇴계가 40대 후반에 兎溪 곁에다 집을 짓고서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서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원문 끝에 「時師在清涼山滿月庵」(이때 스님은 청량산 만월암에 있었다)라는 小注가 달려 있다.

이 시에는 봄을 맞아서 퇴계 자신이 거처하는 시냇가나, 스님이 거처하는 높은 산 위의 禪房이나, 다 한결같이 고요하기만 하고, 또 푸르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아낌없이 그려내었다. 이 시로 보아서 아마 퇴계는 이 「雄師」를 매우 좋아한 것 같다.

<土遂自書堂携印上人來, 請題詩卷. 三首>

落落高懷肯自低, 來尋蓬戶伴雲鞋.
爲憐滿袖皆虹月, 行遍千山夜不迷.

—《續集·卷一》, p.469

<임형수(林亨秀)가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인상인을 데리고 와서 그가 가진 시 두루마리에 글을 적어 줄 것을 청하여. 세 수>

우뚱하고도 우뚱한 마음씨
오히려 스스로 낮추기를 허락하여,
나의 보잘 것 없는 오두막집을 찾아 오느라
도사의 가벼운 신 신었네.
참하도다! 소매에 가득한 것
모두 무지개와 달이니,
천 만 봉우리를 두루 돌아다녀도
밤길 잃지 않으리.

이 시는 퇴계가 서울에서 40대 초반에 조정에서 벼슬할 때 쓴 것이다. 「임형수」는 역시 퇴계와 함께 조정에서 벼슬도 하면서, 또 함께 동호독서당에서 賜暇讀書도 하던 친구이다. 그는 성격이 호탕하여 시를 잘 지었으며, 또 文武를 겸전하였다고도 한다.

「印上人」도 어떤 중인지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여기서 생략한 앞의 시 두 수를 보면, 각각 「별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속세의 선비를 찾아다니며 시나 받는 산승」 또는 「머리를 기른 중」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印上人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와 준 것을 고마워하고, 또 자기와 같이 관직 같은 것에 매이지 않고 어디나 훌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좋게 보았다. 셋째 구절의 「虹月」은 곧 「詩卷」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무지개와 달」로 풀어 보았는데, 「무지개」은 흔히 「다리」(橋)라는 뜻을 나타낸다. 다리가 있으면 어디라도 건너갈 수 있고, 달(月)이 있으면 어느 때나 다닐 수 있다. 마음 속에 어디라도 넘나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贈師門法蓮>

一畝儒官一鉢僧，欲成吾志汝安憑？
事同出殺雖非易，誠似移山詎不能？
風月滿川須有主，雲霞入眼好爲朋。
明年返我迷行駕，衡泌端居樂莫勝

—《續集·卷二》 p.487

한 구석 땅 선비의 집에
한 사람의 중,
나는 나의 뜻 이루려 하나
너는 무엇을 믿겠는가?
일인 즉 검은 숫양을 내놓는 것 같아
네 비록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성 산도 옮길 듯하니
어찌 불가능할 것인가?

바람과 달은 온 천지에 가득하지만
 모름지기 주인이 있으며,
 구름과 놀 눈에 들어오면
 벗하기에 좋네.
 내년엔 나의 잘못된 걸음
 되돌려 돌아올 때면,
 사립문 닫고 샘물 마시며 호젓이 지낼 수 있으리니
 그 즐거움 어디에도 비기지 못하리.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붙어 있다.

내 도산의 남쪽 골짜기에 서당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여, 龍壽寺의 중 法蓮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다. 法蓮은 내가 돈을 풍부하게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난색을 표하지 않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또 세상일에 구속을 받아(벼슬이 내려졌다는 말)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법련이 와서 이르기를 건축 계획 때문에 경주에 갔다가 오겠다고 한다. 나의 소감을 적어 그에게 주노라.

이 小注와 위의 詩句를 보면, 퇴계가 비록 풍부한 노임을 줄 수가 없으나, 法蓮이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陶山書堂을 지어 주려는 호의에 크게 감사하고, 자기는 잠깐 다시 벼슬길에 불려져 서울로 올라가지만, 곧 사직하고 돌아올 때에는 평생 소원하던 서당이 완성되어 자연을 벗삼고 호젓한 은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즐거운 기대에 차 있다.

그러나 이때 서울에 갔다가 곧 돌아와서 보니 法蓮이 죽어 버렸기 때문에, 퇴계는 그가 지은 도산서당에 거처하면서 늘 이 법련의 호의를 잊을 수가 없었다. 법련의 제자인 祖敏이란 중이 퇴계선생이 그의 스승에게 지어 주었던 위의 시를 품고 와서 퇴계에게 보이자, 퇴계선생이 그를 위하여 슬픈 생각을 이기지 못하다가, 다시 絶句詩 한 수를 지어 祖敏에게 주면서 앞의 시 뒤에 함께 붙여 두고 보라고 하였다는 것을 <逸目錄>(p.475)에서 알 수 있으나, 그 絶句詩는 지금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이단이라고 하는 불교도와의 사이였지만, 또

비록 목수로서의 재능 때문에 그와 가까워지기는 하였지만, 인간적인 신뢰와 애정이 넘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겠다.

IV. 宗粹上人에게 준 詩

앞에서 이미 몇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陶山全書》에서는 다른 승려들과는 다르게 宗粹上人에게 지어 준 시는 여러 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서는 좀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에게 지어 준 시로는;

1. <종수상인에게 주노라>(贈宗粹上人)
2. <묘봉암 팔경, 8수>(妙峯庵八景, 八首)
3. <관음암 아래 시내와 바위들이 매우 아름답다. 한참 앉아 있는데 종수상인이 「시냇물 흐름 마땅히 웃을 것이다. 벼슬한 나그네를, 씻으려 하여도 씻지 못할 것이다, 붉은 티끌 자취를」이라는 구절을 들추어 읊기에, 서로 보고서 한바탕 웃었다. 여기에 적어 그에게 보이노라>(觀音庵下, 泉石甚佳. 坐頃, 宗粹上人舉「溪流應笑玉腰客, 欲洗未洗紅塵蹤」之句, 相視一粲, 書此示之)
4. <종수상인에게 주노라. 2수>(贈宗粹上人, 二首)
5. <수상인에게 주노라>(贈粹上人)
6. <종수상인의 운자에 맞추어>(次宗粹上人韻)

같은 6題의 시 14수가 보인다. 그러나 4·5·6은 시제만 <逸目錄>에 보일 뿐, 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중에 <妙峯庵八景>만은 《退溪全書》本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小注가 있다.

宗粹上人이 소백산의 높은 곳에 암자를 엮으니, 이름을 묘봉암이라고 하였다. 그 주위의 경치 여덟 가지를 소재로 삼은 시를 적어 줄 것을 구함에 이렇게 적어 주어, 만 날 내가 거기를 찾아서 놀러 갈 평계를 삼고자 하노라. 경술년 하지 후 몇 일 뒤, 퇴계의 병든 늙은이.

여기 나오는 경술년은, 퇴계 50세에 풍기군수를 사임하고 陶山 兎溪로 돌아와서 있을 때다. 그 전 해(기유년) 4월에 퇴계는 군수로 재임하면서 小白山에 유람한 일이 있는데, 이 때에 쓴 기행문 <遊小白山錄> (《陶山全書》 3冊, p.252)을 보면, 이 때에 宗粹上人이 묘봉암에서 내려와 몇 일 동안이나 퇴계를 陪行하고 다녔다. 이때, 위 3, <관음암……>이라는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이 기행문에 나오는데 그 전후 문단을 잠시 여기 옮겨 보고자 한다.

…… 내려와서 개울을 건너 바로 관음굴로 올라가서 멈추고 잤다. 다음 날 을축일에 산을 내려오니, 산 아래 반석은 편편하게 넓는데, 맑은 샘물이 그 위로 흘러 들었다. 그 위쪽에서는 물소리가 쿵쿵하고 났다. 양쪽에는 목련꽃이 활짝 피었는데, 내가 그 곁에 지팡이를 꽂아 두고서, 개울로 내려가 물장난을 하니 마음에 매우 만족스러웠다. 종수승려가 읊조리기를 「……」 하면서 “이 구절은 누구의 말입니까?”라고 한다. 드디어 서로 보고서 한바탕 웃고서 「……」라는 시를 짓고서 떠났다.

이 기행문에는 그때 지은 시는 생략하였는데, 《陶山全書·遺集》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亂石中間漱玉流, 寒聲淅瀝碎琳瑯.
坐來更被高僧笑, 欲洗塵蹤不自由.

어지러운 돌 사이에서
옥류수로 장난하네,
차가운 소리 철벽거리며
옥이 부서지는 듯,
갑자기 또 당하게 되었네,
높은 스님의 비웃음을.
티끌 묻은 발자취 씻고자 해도
스스로 말미암을 데가 없네.

이 시는 아주 재미있게 쓴 것이다. 엄숙한 분위기만 느껴지는 도학자가 산속에 쿵쿵 흐르는 옥류수를 보고서 여름날 낮에 한참 산에서 걸어 내려와서, 더운 김에 옷을 걷고 물을 튀기면서 물장난을 즐기고 있는 참에, 멀찌막이 뒤에서 따라오던 덕이 높은 산승이 나타나서 마음놓고서 물장난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위에서 이야기한 <妙峯庵八景>로 돌아가서, 거기 나오는 첫째 시 한 수만 소개하고자 한다.

<巖巒遶屏>

鐵削蓮敷詭狀姿, 高高蘭若作屏圍。
不知宴坐觀空妙, 傳得渠家幾祖衣?

<멧부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쌌>

쇠를 깎은 듯 연꽃을 펼친 듯
기이한 모습의 바위들,
높고 높은 절간의
둘러싼 울타리 되었네.
알지 못하겠네, 고요히 앉아
공(空)의 이치 오묘하게 살피고 있으니,
전하여 받았는가? 그들의 세계에서
몇 번째 조사(祖師)의 의발(衣鉢)을?

첫 구 「쇠를 깎은 듯, 연꽃을 펼친 듯」은 제목이나 문맥으로 보아서 는 물론, 위에서 읊긴 바와 같이 이 묘봉암 주위의 기기괴괴하게 생긴 바위의 모습들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鐵削蓮敷」라는 네 글자만 보면 「연꽃 위에 얹혀 놓은 쇠로 만들어 놓은 부처」를 연상하게도 된다.

퇴계가 중들에게 지어 준 시에서는 불교나 승려들의 교리 같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배척 같은 것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나 승려들에게 그렇게 敬意를 보인 것도 아니다. 이 시

에도 속세와 멀리 떨어져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이 암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퇴계는 이 절 주위의 기괴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부처의 기이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 구절에서 「전하여 받았는가? 몇 번째 祖師의 衣鉢을?」이라 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인사치레로 써 준 구절 같지만은 않다. 앞구절들에서 강조한 이 주변 위치의 높음은 이 스님의 높은 수양과 덕망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 시는 불교에 대하여 기이하고 超俗적인 것에 관하여 약간은 거리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시의 주인공이 되는 宗粹上人에 대하여는 상당한 호감을 지녔던 것같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수상인에게 보낸 시(<贈宗粹上人>) 한 수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萬事終歸一指薪, 勞生何用敝精神?
 三杯飲酒猶通道, 五斗吞葱不耐辛.
 黃卷舊聞天外樂, 白雲今見意中人.
 妙峯宴坐觀空處, 眞覺人間一聚塵.

세상 만사 끝내 돌아가네,
 한 가닥의 쉼으로.
 삶을 수고롭게 하여 무엇하랴?
 정신을 헐면서까지.
 세 잔 술 마시고 보면
 꼭 도(道)에 통한 것 같으나,
 다섯 말에 파를 삼키니
 매운 맛 견디기 어렵다네.
 누런 책에서 옛날 들었네
 하늘 밖에 있는 즐거움을,
 흰 구름 속에서 이제야 보이네,
 뜻에 맞는 사람을.
 묘봉암에 고요히 앉아서,

공(空)을 살피는 곳에.
 참말로 느끼리, 인간 세상이란
 한 무더기의 티끌이라는 것을.

이 시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불교도인 宗粹上人을 매우 좋게 보고 쓴 시다. 인간 세상이란 따지고 보면 허무한 것이지만, 방탕하게 술이나 마시고 정신을 소모할 것은 없다. 나는 불교의 경전 [黃卷] 에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구름 속에서 사는 宗粹上人과 같은 도를 터득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묘봉암에서 고요히 앉아서 수도에 정진하고 있는 이 스님은 참말로 인간세상이 한 무더기의 티끌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퇴계가 승려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시를 썼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宗粹上人의 시에 次韻한 시까지 퇴계가 지었다고 하나,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으니 아쉽다.

V. 結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목판본 퇴계문집에서는 더러 퇴계가 산사에 가서 지은 시는 보이지만, 산승에게 지어 준 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사본 《陶山全書》에는 전부 100題에 가까운 퇴계의 贈僧詩가 보이며, 그 중에는 내용이 전하는 것만도 15題 정도나 된다.

이러한 시들은 대부분 승려들이 名士들을 찾아다니며 「求詩」, 「索詩」 하며, 詩卷이나 詩軸을 장만하던 풍습에 유래되어 적어 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몇 수의 시를 보면, 퇴계는 승려들이 塵世의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遊行할 수 있는 것, 고요하게 산사에서 정진할 수 있는 점 같은 것을 매우 좋게 보았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퇴계가 小白山 上伽陀(普照國師가 머물던 곳)에서 지은 시에서 보조국사가 9년

동안이나 산을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 「그 심정이 어떠하였는가
는 물을 것이 없지만, 그 고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반성을 자아낸
다」(不須心法問如何, 苦行令人發深省)⁸⁾라는 말이 있으며, <山人 惠忠을
떠나 보내며>(送山人惠忠)라는 시의 서문 [并序] 을 보면, 불교가 비록
살을 태우고 인륜을 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만, 속세에서 구하는
것이 없고, 사리사욕이 없으며, 그 심사가 고요하고, 말없이 도리를 터
득하는 점 등은 장점으로 보았다. 여기서 잠깐 그 서문을 좀 인용하여
보고자 한다.

가정(嘉靖) 계사년 봄에, 나는 의령에 놀러 갔는데, 어떤 중이 문을 두
드리고 만나 보고자 하여, 맞아 들여 보니 그 모습이 고요하고, 더불어
말하여 보니, 그 목소리가 쨍쨍하여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
나는 또 이 때문에 이 스님의 사람됨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믿고, 마음
을 터놓고 말할 만하였다.

나는 늘 옛날의 명공 거유들이 대개 노장·불교도들과 어울려 즐겁게
노는 것을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또 저 불교라는 것은 오랑캐의 법의
하나다. 그들이 살을 태우고, 인륜을 끊는 것은 …… 명교(名敎)에 어
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쳐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흠모
하기도 하고 숭상하기도 하며,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니, 이 정말 어떻
게 된 것인가?

지금 생각하여 보니, 거기에도 또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처신하는 데는, 속된 것에 골몰하고, 명예에 급
급하며, 바깥만 보고 안은 들여다보지 못한다. 궁(窮)·달(達)로써 높
고 낮음을 결정하고, 벼슬과 지위로써 귀하고 천함을 나눈다. 그들의
가슴속은 한참 후끈거리면서 막혀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높은 재주와 밝은 지식이 있다고 한들,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더불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노장과 불교를 위하는 이들은 이와는 달라서, 반드시 세상에서 구하는

8) 《退溪全書·續集》 卷二 <上伽陀>.

것이 없으며, 자기 자신에게 사사로움이 없으며, 사물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혹되거나 정신을 빼앗김이 없으니, 이렇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고요하며, 그 지혜와 깨닫는 것을 높이고 밝히는 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대개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터득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말을 하는 데도 그 뜻을 터득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9)

이 글은 퇴계가 33세 때 쓴 글인데, 아마 퇴계의 불교 승려에 대한 태도는 평생 동안 별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小白山 妙峯庵의 宗粹上人같은 승려에게 퇴계가 상당한 호의를 지니고 있었음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만약 이 글에서 제목만 소개한 퇴계가 승려들에게 보낸 시들을 다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기서 다룬 것보다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질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퇴계가 승려들에게 준 시에서는 이 글에서 언급한 韓愈의 시와 같이, 시에서도 비록 불교에 대한 반대 태도는 견지하면서도, 상대방 승려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한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퇴계가 시를 지어준 淸涼山 僧侶들에게 주세봉이 지어 준 시와 비교해 보아도 판이하다. 이 점도 퇴계의 일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9) 《陶山全書·遺集》 第四冊, 169쪽.